

# “ 환상의 실현 ”



金 采 恩  
(수필가)

소양호를 끼고 서울로 향해 달리며 바라본 저녁에는 잿빛 구름이 비껴 떠 있어 더욱 붉게 이글거린다. 좋아하는 물엿을 지나면서도 아무말이 없는 게 이상해서 슬쩍 운전석을 돌아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졸리운 듯한 눈하며 어릿해 보이는 남편의 얼굴은 잠이 들기 직전이다. 어찌면 이미 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깜짝 놀라서 길옆에 차를 세우게 하고 눈을 붙이라고 했더니 졸지도 않았거니와 시간이 늦었다면서 그대로 가려고 한다.

어제는 느지막이 남교리에 도착해 계곡의 초입에서 야영을 했고 오늘은 일찍부터 서둘러 십이선너탕을 올라 대승령을 넘어왔으니 지금 쯤 졸릴만도 한 일이다. 짐도 지지않고 운전도 아니한 나보다 한결 피로할 것은 당연한 일인데 본인이 결코 졸지 않았다는데야 더 어찌할 수도 없다. 그저 눈치껏 조나 안조나 감시를 하며 가려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럴 때 나는 정말 곤혹스러워진다. 어엿한 면허증까지 있겠다 졸린 사람을 쉬게하고 내가 대신 차를 몰면 되련만 그걸 못하니 한심한\*노릇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쓰지도 않을 운전면허라면 무엇하러 그 고생을 해서 땀느냐고 채근을 해올 때는 할 말이 없지만 겁이나서 도저히 못하겠는데야 낸들 어찌 하겠는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계에 관한 것이면 나는 웬일인지 아주 하찮은 것에도 절절매곤 한다.누가 카메라의 셔터라도 눌러달라고 하면 사양하기 바쁘고 그 흔한 녹음기도 스위치를 구별하기 번거로워 잘 이용하지 않고 지낼 정도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한층 복잡한 비디오셋이나 컴퓨터에는 아예 손을 댈 생각도 않고 살아간다. 다행히 가족들은 모두 그런 것들을 잘 다루는 편이라 나 하나 「기계치」(機械癡) 노릇을 한다 해도 별 불편은 모르고 지내왔다. 다만 귀가가 늦는 가족들이 더러 텔레비전 프로를 녹화해달라

고 부탁해 올 때 들어주지 못 한다거나 운전을 못해서 지금과 같은 경우를 당할 때 스스로 자존심이 좀 상하곤 한다.

두어 달 쯤 전 사람들은 보이저 2호에 대한 보도를 보며 많은 화제를 나누었을 것이다. 처음 그 뉴스에 접했을 때 내가 받은 느낌은 한마디로 <환상의 실현>이라는 감동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했겠지만 나는 그동안 그런 존재가 태양계의 행성들을 끌고루 지나가며 태초 이후의 신비를 탐색해 오고 있는 줄은 전혀 모르고 지내왔었다. 열두 해 전에 떠났다니까 그때는 내가 아직 젊은여자 소리를 들을 무렵이었던가 보다. 젊었던 여자가 온갖 잡다한 인간적인 것들에 부딪히며 소모되어 오는 동안 보이저 2호는 노추(老醜)와는 상관없이 그러나 무엇보다 제 스스로 느끼고 번뇌할 줄은 모르면서 관찰의 임무에만 충실해 왔을 것이다.

비록 감정의 유무나 소모의 완급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부질없는 삶을 끝낸 후 어디로 사라져 가는지 짐작도 못하면서 그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주선 또한 제가 가는 궁극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채 환상의 여정을 이어가는 불확실한 존재라는 점은 다를 게 없다.

가장 확실한 논리의 근거 위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주과학을 <환상>이라는 추상명사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내 인식의 능력 밖의 상황에 대해서는 신비의 영역으로 미뤄놓는 소극적 사고습관 때문인 듯하다.

어찌되었든 閭巷의 한 여자가 무능과 무지에서 오는 곤혹에 시달리고 있거나 말거나 첨단기술은 이 순간에도 촌음을 다투며 새로워지고 있다. 그러한 인간의 탐구가 종내에는 미증유한 상황들에 대한 진상을 내 앞에 증명해 보여주겠지만 그러하거나 말거나 나는 또 나대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전설을 들려줄 것이고 어두운 하늘 가운데에서 반짝이는

작은 별들을 가슴 설레이며 헤어 볼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듯이 아침이면 잠든 나를 깨워 동터오는 먼 산을 바라보라 하는 자명종 소리에 놀래어 일어날 것이고 이 높은 곳까지 힘차게 솟아오르는 물줄기와 여름날 한 잔의 냉수 위에 떠있는 몇 날 얼음조각을 바라보며 신기해 할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기술은 고작 그 정도에서도 경이인 것이다.

「정말 졸려 오는데……. 길도 한가하니 당신이 운전 좀 해볼래?」

실없는 생각에 잠기느라 그가 조는지 어떤지 감시하는 일조차 잊어버리고 있던 나는 이 말을 듣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를 보고 운전을 하란다. 그는 나를 좀 기죽게 하거나 놀리고 싶으면 가끔씩 이런 말을 해온다. 그런 줄 알면서 대꾸를 할 것도 없고 기가 죽을 것은 더욱 없다.

차는 그 사이에 홍천을 지나 지금은 이름 모를 어느 작은 마을 앞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불타던 해는 이미 산 너머로 사라져 버렸고 옅은 잔광만이 서늘 하늘에 가득하다. 아무리 서둘러 간다해도 아이들과 약속한 시각까지 도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혹시 싶어 둘러보는 눈길에 마침 공중전화 표지가 있는 가게가 눈에 띄었다. 남편의 줄음도 쫓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과 통화도 할 겸 잠시 쉬어가자고 해야겠다.

이제 차가 멈추면 나는 몇 개의 동전을 챙겨 들고 내릴 것이다. 그리고는 전화기 앞으로 걸어가 다이얼을 돌릴 것이고 그러면 곧 전화기속에서 들려올 아이들의 목소리……. 여기서 서ული 얼마나 먼 거리인가, 그 아득한 공간을 순식간에 달려와 나를 부를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때에 나는 수화기를 붙든 채 얼마나 또 감격해 할 것인지…….

